# 전북 지자체 통합 '공공배달앱' 연말께 출시

## 익산시 등 시·군 관계자 회의서 앱 개발 합의…운영방식·주체 등 논의
## "시·군 별도 운영시 예산낭비 등 효율성 저하…광역차원 운영 일원화를"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통합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이 이르면 연말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익산시는 이를 중단하고 전북도와 속도를 맞추기로 했다.

9일 익산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일선 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광역 차원에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별로 공공 배달 앱을 개발·운영하는 대신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 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1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배달 앱의 적용 대상을 외식업뿐만 아니라 숙박업이나 전통시장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공공 배달 앱 운영 방식과 주체,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오는 8월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공 배달 앱 개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 안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달 앱 개발을 추진했던 익산시 등은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공공 배달 앱 추진을 검토하면서 오는 추경예산안 반영을 위해 배달앱 업체 면담, 시민 설문조사 실시 등 준비를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배달 앱이 더 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북도와 보조를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 배달 앱이 민간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성공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연합뉴스

## 남원 사매산단 첫 입주 대승엠엔에스 투자협약

조립식교실 생산업체인 ㈜대승엠엔에스가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첫 입주를 약속했다.

남원시는 9일 시장실에서 대승엠엔에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의 첫번째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승엠엔에스는 지난해 설립한 창업기업으로, 70억원을 투자해 사매일반산단에 부지면적 3만 3058㎡, 건축면적 3998㎡에서 모듈러교실(조립식 교실)을 생산한다.

남원시는 기업투자로 20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남원사매일반산단(58만7000㎡)은 이달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첫 번째 입주기업인 만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순창 특산품 '고추장 양념소스' 4만개 중국 수출길

### 문옥례식품, 3500만원 어치 계약

순창군 특산품인 고추장이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읍내 고추장민속마을 소재 문옥례식품이 중국 더특화식품 유한회사와 부대찌개용 '고추장 양념소스' 4만개(3500만원 상당) 수출계약을 했다.

계약 물량은 오는 17일 첫 중국 수출길에 오를 예정이다.

문옥례식품은 지난해부터 미국에도 장류와 장아찌 등을 수출하고 있다.

조종현 문옥례식품 대표는 지난해 고추장 명인에 등극하며 2대째 순창고추장 맛을 이어가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추장, 장류, 발효소스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 수출 전망이 밝다"며 "중국 수출을 계기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명품 장류와 발효소스 제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중국 흑룡강성 기업인협회 회원들이 순창 발효식품 고추장 제품을 맛보고 있다. 〈순창군 제공〉

## 황금달맞이꽃·꽃향유 '야생화 천지' 정읍천변

### 덩굴장미 등 7만여그루 식재 꽃길 조성…"가족과 함께 걸어보세요"

정읍시가 정읍천 도로변에 야생화 꽃길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내장호와 도심을 잇는 정읍천의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문화광장까지의 자전거도로에 다년생 야생화인 꽃향유, 황금달맞이, 덩굴장미를 심었다.

정읍시는 지난해 3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구간에 다년생 야생화인 황금달맞이꽃 7만 3500그루와 꽃향유 11만5800그루, 터널구간에 덩굴장미 860그루를 심었다.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꽃길 조성지 보식과 제초·덩굴제거 작업 등 유지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시는 오는 2022년까지 왕복 8㎞ 구간에 꽃을 심고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황금달맞이꽃의 꽃말은 '무언의 사랑'으로 정읍사 여인의 천년의 기다림, 지고지순한 사랑과 어울려 선정·식재하게 됐다.

황금달맞이꽃은 해가 뜨면 꽃이 피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는 특성이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천 꽃길에서 단풍나무 녹음과 황금달맞이 꽃이 어우러져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꽃길 걷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에 라벤더 등 꽃박스와 화단 향기 식물을 식재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가 정읍천 도로변에 꽃향유, 황금달맞이, 덩굴장미 등 야생화 꽃길을 조성했다.

## 마을회관·경로당 229곳에 고창군, 안마의자 등 보급

고창군은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마의자와 혈압계, 발마사지기를 보급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229개소에 이달 중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농민들은 오랜 농사일로 손발저림, 허리통증, 어깨결림 등 다양한 증상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접근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았다.

또 안마의자 등은 비용부담으로 구입하기 어렵거나 구매 하더라도 유지보수 기간이 짧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었다.

고창군은 3년 무상유지보수와 외피 무료교체 등을 의무로 계약해 유지보수비용 부담을 덜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마을에 안마의자 등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를 보급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의료보조기구 사용방법을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익산 초등돌봄 60곳 과일간식 무상 지원

익산시가 10일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250여명에게 과일 간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양한 제철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컵이나 파우치 등에 150g가량을 담아 연간 30회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을 위해 HACCP(해썹·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에 과일 공급을 맡긴다.

익산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2억 7100만원을 투입해 4400여명에게 총 14만3400여 개의 과일 간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무상지원에는 약 1억3700만원이 투입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사업이며, 지역 과수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군산 시간여행축제' 플리마켓 참가자 모집

군산시는 '2020 군산 시간여행축제'의 플리마켓(벼룩시장) 참가자를 10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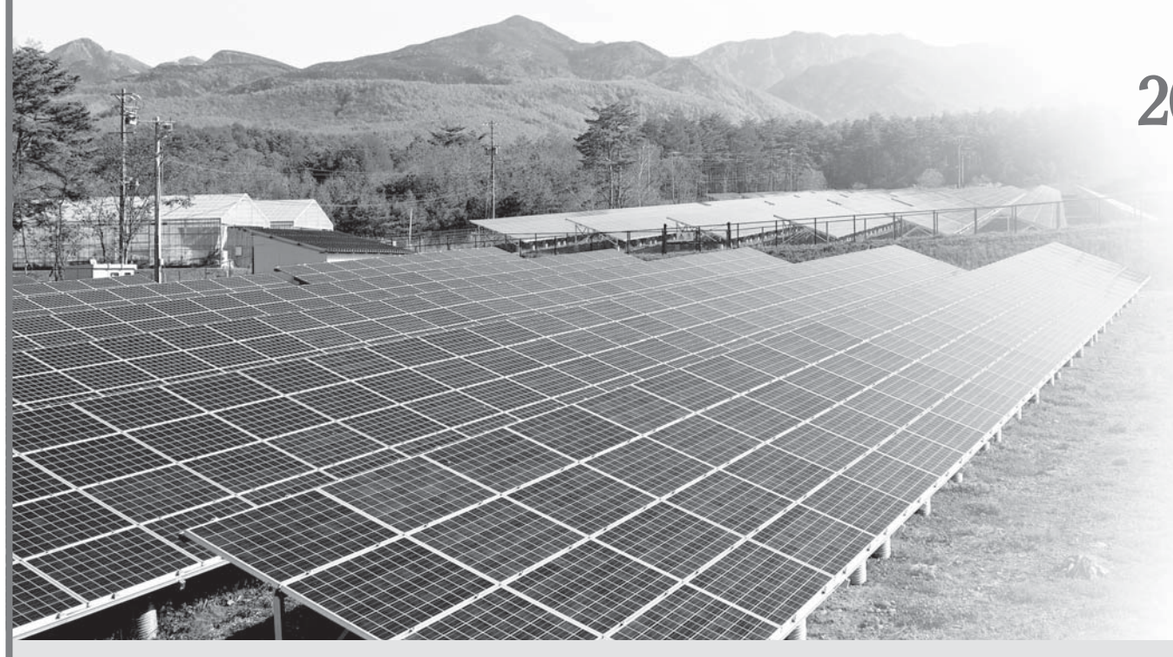
지역 특색이 담긴 핸드메이드 공방이나 공예, 액세서리, 잡화, 의류 등을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는 군산시민이면 된다.

선정되면 판매 부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간여행축제는 일제 강점기 등의 근대 역사를 체험해 보는 행사로, 올해는 10월 9일부터 사흘간 옛 군산시청 광장과 시간여행 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